

이재용-최태원 나란히 앉아 담소... 설레는 평양行

〈삼성전자 부회장〉

〈SK그룹 회장〉

특별 수행원 '재계 총수들'

이재용, 김현철 보좌관과 대화도
현정은 현대 회장, 47일만에 방북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정상회담' 특별 수행원으로 18일 평양으로 간 재계 총수들의 행보도 눈에 띈다.

재계 1위 삼성그룹의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평양행 여객기인 공군 1호기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나란히 옆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은 재벌가의 2·3세 경영인으로서 예전부터 돈독한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이다.

일례로 이재용 부회장은 2013년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의 이사직을 맡았는데, 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맡아오던 자리를 승계한 것이었다. 최 회장이 당시 구속수감되면서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물려준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최 회장이 보아오포럼 이사직을 추천해 물려줄 만큼 각별히 아끼는 재계 후배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또 같은 해 4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최 회장을 면회하기도 했다.

최 회장이 풀려난 뒤인 2016년에는 두 사람이 함께 보아오포럼에 참석했다.

삼성과 SK는 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나란히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쟁자이자, 국내에서는 이동통신 사업에서 협력관계(이동전화 단말기-이동통신 서비스)이기도 하다.

두 사람은 또 이날 공군 1호기에 오르면서 모두 가방을 하나씩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평소와 달리 수행원이 없다 보니 직접 짐을 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가방 안에 어떤 경제협력 사업 보따리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최태원 SK 회장이 공군 1호기에 탑승해 나란히 앉아 대화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평양특별수행원들과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 들었는지도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 부회장은 또 공군 1호기 내에서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 옆으로 자리를 옮겨 대화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재계 1위 삼성의 총수가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부회장은 또 유희준 명지대 석좌교수, 최문순 강원지사장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목격됐다.

평양에 도착한 재계 인사들은 고려호텔에 짐을 풀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호텔 로비의 소파에 앉아 있는 이 부회장, 최 회장 등과 셀카를 찍기도 했다. 최 회장도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평양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역시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그 감회가 더욱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날 현 회장은 정확하게 47일 만에 다시 북한 땅을 밟게 됐다. 지난달 3일 금강산에서 열린 정몽헌 전 회장 15주기 추모식 이후 연이은 방북이다.

함께 평양으로 떠난 다른 총수들에게 대북사업은 미래의 일이지만, 현 회장에게는 '현재진행형' 숙원사업이다.

현대그룹 대북사업은 20년 전인 1998년 6월 16일 고(故) 정주영 그룹 명예회장

이 500마리의 소 떼를 이끌고 판문점을 통과해 북한으로 들어가면서 물꼬가 트였다.

역사적인 '소 떼 방북' 이후 현대그룹은 같은 해 11월 금강산관광 사업을 시작했고, 2003년 개성공단 개발로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펼쳐나갔다.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직후인

2000년 8월에는 현대아산이 북한으로부터 전력사업, 통신사업, 철도사업, 통천비행장, 임진강댐, 금강산 수자원, 명승지 관광사업 등 7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최소 30년간 운영할 권리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SOC 사업은 사업권을 얻어낸 지 18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정치·외교적

문제로 의풍을 타며 제대로 된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2008년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 이후 중단됐고,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인 2016년 2월에는 남북관계 경색 속에 개성공단 가동마저 전면 중단됐다.

시아버지 정주영 명예회장이 첫 삼을 뜨고 남편 고(故) 정몽헌 회장이 기반을 닦은 대북사업을 이어받은 만큼 현 회장이 느끼는 책임감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올해 들어 급물살을 탄 남북 화해 무드 속에서 사업재개를 향한 현 회장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표출됐다.

현 회장은 지난달 정 전 회장의 추모식에 참석한 뒤 돌아오는 길에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제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다"며 "올해 안으로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김승호차장(팀장)·이범중·구서운·나유리·정연우 기자

南 정의용·北 김여정 등 정상회담 배석

오후 3시45분 3차 회담 시작

18일 오전 평양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45분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첫 날 정상회담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평양으로 떠나기 전 한반도에서 전쟁 공포를 해소하고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촉진을 위해 김 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정상이 회담을 한 장소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다. 청와대 운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노동당사에서 남북 정상이 회담을 갖는 것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회담에는 남측에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북측에선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여정 당중앙위 제1부부장이 배석했다.

전날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중재 및 촉진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 종식을 꼽았다.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중재 및 촉진



은 문 대통령이 서울을 떠나기 전 재차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다.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발표까지 됐다가 전격 취소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 또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할 비핵화 조치를 김 위원장으로부터 끌어내는 것을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올 추석에도,
효능·효과까지 생각한
의약품 비타민 C!

유한
비타민 C 정
1000mg



오직
약국
에서만!

피로회복 | 피부건강 | 잇몸출혈·비출혈(코피) [무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침묵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